

‘민식이법’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여전

10월 현재 스텔존 과속 단속건수 지난해보다 40.5% ↑ 단속카메라·제한속도표지판 등 설치됐지만 안전 위협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스텔존에선 시속 30km를 준수해야 하지만 여전히 과속 운전이 이뤄지면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시 이도1동에 위치한 광양초등학교, 이 학교 인근은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데다 도로 폭이 좁아 일방통행으로 지정됐지만, 좁은 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었을 뿐 아니라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또 이곳은 한 골목 사이에 두고 정문까지의 폭이 좁아 신호등은 물론, 겨우 4칸짜리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다. 펜스가 설치된 보도가 학교 쪽으로 설치돼 있지만 학교 시간이 되자 차량과 아이들이 뒤섞여 혼잡해지면서 여기저기서 경적이 울리기도 했다. 후문 인근 불법주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면서 위험한 상황도 여러 번 목격됐다.

제주시 삼도1동에 위치한 중앙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과속 운전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당신의 현재 속도는?”이 썬진 과속 경보 시스템도 설치돼 있었지만 시속 30km를 넘는 차량은 물론 시

속 50km에 달하는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도 목격됐다.

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과속 단속 건수는 모두 1만7161건에 달한다. 2019년 한 해 동안 1만2211건이 적발된 것에 비해 40.5% 증가한 수치다. 월별로 보면 1월 1294건, 2월 1618건, 3월 1840건, 4월 3868건, 5월 2777건, 6월 2713건, 7월 2270건, 8월 564건, 9월 201건, 10월 16건 등이다.

경찰은 올해 전반적으로 단속 건수가 폭증한 데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추가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8월부터 매달 평균 2000여건이던 단속 건수가 8월부터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해선,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텔존 제한 속도가 30km로 낮춰졌지만 속도·노면 표시판 등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8월 1일부터 3개월간 과속 단속 유예기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 다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단속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낮추고 주의를 잘 살펴 어린이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1일 오후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이상국기자

82번 확진자 발생 “인천 확진자 접촉자”

최근 10일간 평균 1.7명 발생

1일 오후 1시 36분쯤 제주에서 82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22명이다. 특히 지난달 22일부터 매일 1명 이상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최근 10일간(11.22~12.1) 평균 1.7명이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 82번째 확진자 A씨는 지난달 29일 지인 3명과 제주에 들어왔고 다음날인 30일 인천 소재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접촉자라는 문자 안내를 받았다.

A씨는 통보를 받은 당일 렌터카를 이용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고 1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세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했고,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역조치할 방침이다. 또 일행 3명 중 이미 제주를 떠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접촉자로 분류하고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완료했다.

도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60대 벌금 1000만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제주시 도남동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택시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서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4·3연구소 “행불 수형인 재심 결정 환영”

제주4·3연구소는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당시 수형 생활 중 행방불명된 10명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4·3연구소는 1일 성명에서 “4·3 행불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당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심 개시 결정의 핵심이었던 행불 수형인들의 사망 여부와 불법 연행, 고문 등에 대해 재판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주목한다”고 밝혔다

4·3연구소는 이어 “현재 수형인 340여명의 유족들이 낸 재심 청구소송도 심문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들에 대한 재심 청구소송에서도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면서 “4·3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일괄적 해결 밖에 없는 만큼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여친 무차별 폭행 30대 살인미수 추가

검찰, 피의자 구속 기소 “살인 의도 인정돼 적용”

해어질 것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감금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대해 검찰이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미수, 상해, 폭행, 특수협박·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강도(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3일 사귀던 여자친구 A씨를 제주시내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끌고 가 사흘간 감금해 덮을

짓을 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약 5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검거망을 피해 달아난 강씨를 도주 사흘 만인 지난달 8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이도2동에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끝에 강씨가 애초부터 A씨를 살인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피해 여성은 감금 사흘째인 지난

달 5일 오전 8시34분쯤 강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이웃집으로 도망친 뒤 112에 신고하면서 강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과 장기 파열 등의 증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과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됐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아니었다. 특히 강씨의 전과는 강간 상해 등 동종범죄를 포함해 21범에 달했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악랄한 범행을 저질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멸종위기 상괘이 사체 또 발견

제주시 용담동 인근 해안가에서 해안생물보호종인 상괘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43분쯤 제주시 용담동 스타벅스 앞 해안가에서 돌고래 사체가 있다는 관광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 확인 결과 해당 사체는 길이 127cm, 폭 50cm, 무게 30kg 가량의 암컷 상괘이로 폐사한 지 일주일 이내로 추정됐다. 해경은 불법 포획의 흔적이 없어 지자체에 사체를 인계했다.

상괘이는 개체 수 감소로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해양생물보호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강다혜기자

진정한 제주흑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비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용량 : 20kg

▶ YouTube ▶ 석회질소 ▶ 검색

▶ NAVER DUM ▶ 코코리 ▶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키위농가에 희소식

21세기 최첨단 비료 → “이노페스” 탄생

희토류가 들어있는



이노페스 성분	원료명	효 과
	희 토 류	염류중화 · 토양개량 · 천연항균 작용
	식이유황(MSM)	천연항균 작용
	부 식 산	유기물 대체 · 토양개량
	벤토나이트	토양개량
	고삼 · 백합추출물	토양해중기피
	아미노산	천연질소질 공급
	미량요소(Mg, B, Mo, Cu, Fe, Mn, Zn)	필수 미량요소 공급

특 징

- ☆가스피해가 없다
- ☆항균작용으로 토양이끼 억제
- ☆염류중화 작용으로 뿌리생육 발달로 역병예방
- ☆시비가 간편하며 시간과 인건비 절약
- ☆희토류 첨가로 작물의 기작 조절

사용 방법

키위 = 1,000평 기준 20~25포(포당 15Kg)
 ※ 다른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사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처 (주)포트라 **판매처** **농협 · 김협**

공급처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